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더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 초당적 협력 다짐	1
강원도민일보	02면	"여야 따로 없이 지역발전 힘 모으자" 한목소리	2
江原日報	01면	당선 축하합니다	2
江原日報	02면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정파 초월 하나된 화합의 장	3
<small>강원종합뉴스</small> 강원종합뉴스		[문화] 한국SGI 강릉권 장년부 총회 성	4
강원도민일보	20면	"자랑스러운 강원 독립운동 역사 알리자"	5
江原日報	27면	광복회 도지부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5
江原日報	온라인	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조례안 발의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윤길로 강원도의원, 내륙어촌 어업인 지원 조례 발의	7
<small>춘천MBC</small> 춘천MBC	온라인	양구 강원도의원 재선거, 무소속 '김왕규' 당선	8
江原日報	27면	[동정] 류인출 도의원(원주)	8
강원도민일보	03면	강특법 3차 개정 첫손 꼽아... 케이블카 설치 모두 찬성	9
江原日報	01면	"더 커진 강원 정치력으로 현안 해결 앞장"	10
江原日報	02면	"가장 시급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초당적 협력 절실"	10
江原日報	09면	강원 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11
江原日報	01면	강원 관광 콘텐츠 베트남 사로잡다	12
江原日報	09면	미디어 콘퍼런스 성료	13
江原日報	09면	인기만점 강원홍보관 바이어 상담 쇄도	13
강원도민일보	08면	학령인구 감소 타격...춘천교대 12년 만에 입학정원 감축	14
강원도민일보	16면	정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폭 넓힌다	14
江原日報	07면	공보의 급감 '의사 없는 보건지소' 늘어나나	15
江原日報	24면	[발언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으로 생명을 지키자	15
江原日報	13면	수줍게 내민 얼굴 움트는 봄의 대花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첨단산업 육성 정치권 협치 기대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정파 초월 현안해결 앞장, 실천으로 이어져야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폐광지 의료 등 지역경험 적극 제도화하길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전세 사기에 주거 부담 커진 청년들, 대책은 뭔가	20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01

‘더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 초당적 협력 다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화합교례회

강원 정치권 첫 호흡 맞춘 자리
도내 당선인 8명 합치면 24선
특별법 개정 등 현안 해결 기대
도민 표심 전국과는 상반 결과
국회 6·민주 2석 보수강세 재확인

4·10 총선 강원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더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도약을 위해 초당적인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민일보와 G1방송이 공동주관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가 11일 오전 춘천 스키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화합교례회에는 4선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울), 3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송기현(더불어민주당·원주울), 재선 박정하(국민의힘·원주갑)·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선인과 진중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조창진 G1방송 회장, 18개 시장군수·시군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정계·관계·재계·학계·예술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당선인들을 축하하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지역과 국가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매니페스토 실천 선언을 통해 공약 조기 이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총선에선 도내 21대 국회 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가 11일 오전 춘천 스키이컨벤션 웨딩홀에서 4선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울), 3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송기현(더불어민주당·원주울), 재선 박정하(국민의힘·원주갑)·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선인과 진중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조창진 G1방송 회장, 18개 시장군수·시군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대 총선 강원국회의원 당선인 득표 현황

선거구	당선인	득표율(%)	득표수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53.44	70,273
춘천 철원 화천 양구울	한기호	53.93	43,935
원주 갑	박정하	50.71	52,002
원주 을	송기현	54.08	52,920
강릉	권성동	54.24	64,743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철규	61.22	78,325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양수	55.84	54,738
	유상범	57.71	68,226

역 의원 8명 전원이 22대 국회에 재입성, 총 8석에 불과한 강원도에 대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다”며 “높아진 선수(選數) 만큼이나, 당선인들을 향한 강원도민들의 기대를 잊지 말고, 강원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으로 대립과 극단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전종률 G1방송 사장은 “오늘은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가슴 벅찬 날이다. 지역 주민들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곧, 지역 발전을 향한 획기적인 도약이 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며 “여야 정당을 떠나 함께 방법을 찾아 보면 강원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8명 당선인들의 선수를 합치면 24선이 된다. 여기에 진중오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더하면 총 25선이 된다”며 “양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선인들이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기호·이양수·송기현·박정하·허영·진중오 당선인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강원도당으로

몽쳐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당선인 화합 교례회를 통해 도정치권은 첫 호흡을 맞추며 강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도내 여야 현역의원 8명 전원이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도정치권은 5선(1명)과 4선(1명), 3선(3명), 재선(3명) 등 강원 지역구 의원 선수(選數)만 따져도 ‘도합 24선’의 역대 최강 정치력을 결집하게 됐다.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맞붙은 이번 총선에선 강원 총선 8석 중 국민

의힘이 6석을,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며 보수강세가 재확인되며 전국 표심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기록했고, 범야권의 석은 192석이다.

이세훈·이철화 ▶ 관련기사 2·3·4·5·6면

2024 04 12 ()

강원도민일보

02

“여야 따로 없이 지역발전 힘 모으자” 한목소리

당선인 말·말·말

한 “중앙정치 경험 역량 발휘”
송 “여야 갈등 조정 역할 자신”
이 “3선 힘으로 지역예산 확보”
허 “국민 희망주는 정치 실현”
박 “서로 도우며 이해했으면”

강원도민일보와 G1방송이 공동주최한 22대 총선 당선인 화합교례회에서 도내 당선인들은 “여야없이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4선 중진이 된 한기호 당선인은 11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교례회에서 당선인 소감에 나서 “새로운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일하던 사람 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며 “중앙정치도 ‘물감이가장행이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11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에서 한기호·송기현·이양수·허영·진종오 당선인과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조창진 G1방송 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 띠 케익을 자르고 있다.

경쟁을 했던 후보와 그 지지자 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했다.

3선 고지에 오른 송기현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구조가 21대 국회와 거의 비슷하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갈등 조정, 화합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잘 할 것이다. 선수를 더한 우리가 더 잘 하겠다”고 말했다.

3선이 된 이양수 당선인은 “8년 전,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 역할을 붙여 서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초선은 장관 보기가 쉽지 않다”며 “드디어 3선이 됐다. 장관의 역할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웃음) 시장, 군수님들 제가 예산 할

선 많이 따오겠다”고 웃음 섞인 소감을 전했다.

재선에 성공한 허영 당선인은 “강원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 ‘강원도당’으로서 서로 협치, 협력했다. 이전 통을 재선의원으로서 뒷받침 하겠다”며 “막말,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늘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이 된 박정하 당선인은 “어제 개표가 늦어져서 밤을 새웠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다. 지역구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고 싶은데 행사에 왔다. 앞으로 바뀌어 가면 좋겠다”며 “서로 도와주면서, 보태고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춘천 출신 진종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전문 분야를 살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의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더 낮은 자세로 많이 배우겠다”고 했다.

이선희

2024 04 12 ()

江原日報

01



당선 축하합니다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 한림대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가 11일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허영·한기호·박정하·송기현·이양수 당선자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진하 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성하 KBS춘천방송총국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거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정파 초월 하나된 화합의 장

의미와 과제

단체장·당선자 인사 자리 넘어 함께 지역 발전방안 검토·논의

11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는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현안 논의의 장이었다. 특히 당선 첫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시·군의장 등이 총출동,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가 됐다. ■“역대급 정치력... 이제 일할 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주문=3선 이상의 중진들이 대거 탄생한 만큼 도와 시·군들도 현안 해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진태 지사는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시장·군수들도 모두 참석해주셨다”며 “권성동 의원 5선, 한기호 의원 4선 등 역대 갖지 못했던 큰 정치력을 갖게 된 건 강원도로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력이 높아진 만큼 당선자들께서 도와주시면 어려움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신규 특별법 발굴, 3차 특례안 과제 등 소외받았던 강원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선인들의 경험과 기회로 더 나은 미래 선도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특별자치도로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시장·군수 및 도민과 상견례

=이날 토론회는 당선자들과 시장·군수, 시·군의장단의 상견례 장이 됐다. 단순 인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였다. 각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구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과 연계된 상임위를 다년간 맡았던 당선자에게 관심을 촉구하면서 해결을 요구, 추후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각 당선자들이 지역에서 벗어나 도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는 첫 장소가 됐다는 점이다. 통상 당선 후 유세차량 등을 빌려 각 선거구 내 권역별로 인사를 했다던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에게 당선을 알리고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또 단체장 및 기관장 등과 머리를 맞대며 지역 현안을 고민, 사실상 22대 국회의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토론회였지만 일부 시장·군수들이 축하인사를 겸한 재치있는 농담으로 분위

기를 끌어올렸다.

■강원교육·특별법에 관심을 =강원교육과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교육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셨다. 함께 교육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강원교육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강원교육도 많이 응원해 달라”고 했다.

송기현 당선자도 강원도 내에서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앞으로 개정 작업에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3~4년 정도가 강원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자들께서 더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원선영·이현정기자

2024 04 11 ()

공정합의 전문 전달망

강원종합뉴스

[문화] 한국SGI 강릉권 장년부 총회 성

송은조 기자

한국SGI 강원 강릉지부는 허진석 대표 주관 장년부 패밀리 총회 겸 특별좌담회가 지난 7일 강릉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 한국SGI 강원 강릉지부는 허진석 대표 주관 장년부 패밀리 총회 겸 특별좌담회가 지난 7일 강릉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사진제공=SGI)

이번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00명의 참석자들이 모였으며, 그중 장년부 회원이 200명에 달해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국제창가학회) 강릉 지역 조직의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도와 열정을 반영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세계평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세계 평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SGI 회원들이 어떻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철 한국SGI 부이사장,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심오섭 도의원, 김남수 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원병관 캐롤라인대 부총장(전 강원도립대 총장), 권혁중 재경강릉시민회 회장, 황상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김용기 법무부 법무위원회 회장, 심훈섭 소상공인회장, 박영봉 청운재 이사장, 박동주 허균선양회 부이사장 등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릉 지역사회와 SGI 회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으로, 참석자들은 세계 평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하슬라 남성 중창단의 회원 4명에 의한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허진석 한국SGI 강원대표는 “이명철 한국SGI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간부들의 리더십과 참석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이번 총회 겸 특별좌담회가 대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참석한 내빈들은 SGI의 활동에 크게 공감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했다. 이는 강릉 지역사회 내에서 SGI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석자들의 호응은 지역사회 내 우호적인 파동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2024 04 12 ()

강원도민일보

20

“자랑스러운 강원 독립운동 역사 알리자”

광복회 도지부, 광복기념관 준공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최선”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최근중)가 11일 강원 광복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장복순 춘천시 복지지원과장, 임미선 도의원, 권희영 춘천시시의회를 비롯해 광복회원 및 유족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강원 광복기념관은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4-1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104주년 기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이 11일 강원광복기념관에서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최근중) 회원들과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보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희태

식에서 착공식을 가졌고 지난 1월 18일 춘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날 임정 수립 기념식과 더불어 강원 광복기념관의 준공식도 같이 진행됐다.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폭압에 맞서 조국 독립을 위한 3·1운동의 염원을 담아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많은 독립단체를 지원하는 등 독립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광복회

도지부도 이런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광복기념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준공까지 마친 지금 독립운동 정신을 밑거름 삼아 선열들을 기리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대한민국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원 독립운동을 일상에서 기억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서부보훈지청장도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와 유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 광복기념관이 자랑스러운 강원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살아있는 교육의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2024 04 12 ()

江原日報

27



광복회 도지부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광복회 강원도지부(지부장: 최근중)는 11일 강원광복기념관에서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임미선 도의원 등 내빈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4 04 12 ()

江原日報

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조례안 발의

동해안에 비해 소외 받는 내륙어촌 사업 지원 내용



윤길로(영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내륙어촌의 고령화와 내수면 어가인구의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양식수산물 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우대 조항 등이다.

윤 의원은 "어업 생산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내수면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어촌 어업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의 내수면 어가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강촌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업승계인 우대정책 등 후계자 양성을 통해 어촌소멸위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 04 11 ()

강원도민일보

윤길로 강원도의원, 내륙어촌 어업인 지원 조례 발의



▲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4월 회기에서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오는 18일 도의회 327회 임시회에서 윤길로(영월)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륙 어촌 발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조례는 내륙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내수면 어가인구의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양식수산물 폐사 등의 문제에 대응해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례에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조금 지원,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우대 조항 등이 담겼다.

윤길로 의원은 "어업 생산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으로 내수면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륙어촌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영월 동강따라 백리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산천어·송어 축제 등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기반 시설이 확대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여가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설화

2024 04 11 ()

춘천MBC

양구 강원도의회 재선거, 무소속 '김왕규' 당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양구 강원도의회 재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왕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양구 부군수를 역임한 김왕규 당선인은

32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양구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파로호 주변

소나무숲 테마마을과 백자외식한옥단지

군부대 미활용 부지에 체험관광시설 조성,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도균

江原日報

2024 04 12 ()

27

도시계획위 본위원회 참석

◇류인출도의원(원주)은 12

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제 4회 도시계획위



원회 본위원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03

강특법 3차 개정 첫손 꼽아... 케이블카 설치 모두 찬성

1. 강원국회의원 당선인 정책설문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면서 강원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8개 시·군, 18개 시·군의회의원 협력협력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일보는 11일 오전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주관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 참석한 강원국회의원 당선인,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문조사를 진행, 강원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당선인 대상 정책설문을 싣는다.

22대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 설문조사

<p>22대 국회 최우선 해결 현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강원특별법 3차 개정 2순위=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 3순위=폐광·점경지 등 지역 현안 해결 <p>강원 철도망 조기 구축 관련 필수 SOC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2순위=용문~홍천철도 3순위=여주~춘천 철도 <p>강원형 대표 첨단 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바이오헬스 2순위=SI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p>강원 도로망 조기 구축 관련 필수 SOC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영월~삼척 고속도로 2순위=제2경춘고속 3순위=포천~철원 고속도로 <p>강원특별자치도별 3차 개정안 반영 주요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2순위=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원 등 환경 3순위=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 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국가소유권이전 <p>강원 지역 소멸 문제 극복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관계·생활인구 확대 정책 2순위=기업유치
--	---

복수 응답 2개 조건으로 철도망 조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철도 사업을 물었다. 당선인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4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용문~홍천 철도사업(3명)과 여주~춘천 철도(2명), 고성~제진 동해북부선(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주~원주 철도는 1명이 선택했다. 춘천~속초 철도는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2027년 조기 개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총 2조 998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와 각 시·군,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간 공조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연계,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시·군이 요청할 시 제2회 2오색케이블카가 가능하도록 강원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당선인 6명에게 '제2오색케이블카와 같은 케이블카 신규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6명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원도가 바다를 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선 강릉시와 속초시, 삼척시 등 5개 시군이 설치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단체장들이 지역 구국회의원과 발을 맞춰 제2오색케이블카를 본격 추진할지 주목된다.

■ 도로 사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1순위

핵심 도로 사업을 묻는 문항은 복수 응답 2개를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4명)을 택한 당선자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2경춘고속(3명)과 포천 철원 고속도로(2명), 기타(1명) 순으로 집계됐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내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낮은 경제성장률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국공립 운영 특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묶은 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 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국가소유권이전 특례는 6명 중 2명이 꼽았다.

■ 제2오색케이블카 추진, 모두 '필'



11일 춘천 스키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에서 당선인과 기관단체장들이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서영

"첨단산업 특례 필요" 4명 응답 춘천~속초철, 영월~삼척 고속도 교통망 분야 해결 1순위 답변

업과 행정·재정 등 70여 개 특례를 추가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정책설문을 통해 당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례 3개를 물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특례(4명) 응답이 가장 높았다. 상속세 법안세 등 조세 감면 특례와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원 등 환경 특례는 각각 3명이 선택했다. 최근 도내 교육계 반발을 산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시범도입 특례를 고른 당선인은 없었다. 국제학 교 설립 운영 특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묶은 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 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국가소유권이전 특례는 6명 중 2명이 꼽았다.

■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례 "중요"

강원도는 현행 강원특별법에 첨단산

업과 행정·재정 등 70여 개 특례를 추가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정책설문을 통해 당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례 3개를 물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특례(4명) 응답이 가장 높았다. 상속세 법안세 등 조세 감면 특례와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원 등 환경 특례는 각각 3명이 선택했다. 최근 도내 교육계 반발을 산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시범도입 특례를 고른 당선인은 없었다. 국제학 교 설립 운영 특례를 택한 당선인은 없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묶은 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 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국가소유권이전 특례는 6명 중 2명이 꼽았다.

■ 철도사업 '춘천~속초' 1순위



11일 춘천 스키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에서 당선인과 기관단체장들이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서영

참여=△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 당선인 △송기현 원주 국회의원 당선인 △이양수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당선인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 국회의원 당선인 △박정하 원주 국회의원 당선인 △진종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선수 순 기재>

■ 가장 시급한 강원도 현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원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가장 시급한 강원도 현안으로 꼽았다. 2개 복수응답 조건에서 총 5명이 이를 택했다. 이어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4명), 폐광·점경지 등 지역 현안 해결(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 대응과 복지·사회안전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더 커진 강원 정치력으로 현안 해결 앞장”

01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회

-본보·KBS 춘천·한림대 공동-

강원특별자치도 여야가 역대 최대의 정치력을 활용해 강원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일보·KBS춘천방송총국·한림대 등이 11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는 당선자 결정 후 처음으로 강원지역 현안과 향후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었다. 도 국회의원과 18개 시·군 지자체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별로 당면한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당리당락을 떠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선 고지에 오른 춘천-철원-화천-양구를 한기호 당선자는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표해 “당이 다르더라도 필요할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강원도가 필요한 것들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이 자리에 왔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등 강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인구 감소 해법 마련 등에 공감대 “당을 떠나 여야 합심 ... 강원도가 필요한 것들 해낼 것”

3선에 성공한 원주를 선거구 송기현 당선자는 “놓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라며 “다지에서 온 대학생을 지역 인구조 편입하기 위한 노력부터, 접경지역 군부대와 관련된 인구를 유지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재선부터 5선까지 모인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역대 갖지 못했던 큰 정치력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강원도를 해수

면 다른 곳도 해줘야 하는데,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 전 다음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르는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굴림쇠가 멈추지 않는다. 정치력이 높아진 만큼 도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시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도에 여야 모두 경륜과 역량을 갖춘 다선 국회의원이 어느 때보다 많이 선출

됐다. 더 커진 정치력으로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하 KBS춘천방송총국장은 “유세 기간 약속한 대로 진정한 의미의 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소속 정당 이익보다 국민과 지역 유권자를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가장 시급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초당적 협력 절실”

02

도 12대 당면과제 건의·지원 요청

반도체 클러스터·바이오 국가산단 유치 등 현안 선정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지정·SOC 확충 등 지원 당부

11일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한림대 등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시·군 현안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반도체 클러스터 강원권 확장, 바이오산업 중심지 육성, 폐광지 특별지역 지정 등 12대 당면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18개 시·군 역시 지역별로 3개씩 현안을 선정, 당선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원자치도는 첫 번째 현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선정했다. 전적으로 국회 입법 여부에 달린 과제

라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에 올랐다. 국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70개 입법 과제(114개 조문)를 만들었으며 5월30일 개원 후 강원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강원 권역을 포함하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바이오산업은 강원도가 가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김진태 도정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 원주·횡성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동



○11일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남덕기자 ndkim@kvnnews.co.kr

해·산적 수소 저장·운송클러스터 조성도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

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위기·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5조8,000억원대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권 발전지

원사업과 강릉, 삼척, 양양 복합해양 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울림피 유산 및 산악관광 자원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SOC 확충은 당선자들의 주요 공

약이자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장·군수들은 영월-삼척고속도로, 포천-철원고속도로, 속초-고성고속도로,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삼척-강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다. 새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지난해 2차 개정안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7번 개정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3차, 4차 개정의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치력이 높아진 만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려움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 04 12 ()

09

강원 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15개국 참여 14일까지 열려
설명회 등 해외시장 개척 주력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 세계에 강원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가 11일 하노이 I.C.E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높아진 강원관광의 위상을 드러내듯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이 국제대표단 대표에 선정, 대한민국, 일본, UAE,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5개 참가국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정일섭 본부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은 총 42만여명, 전체 5위 규모로 베트남이 강원도 관광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베트남 여행업계와 강원자치도 간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



◇제14회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이 11일 베트남 하노이 I.C.E 하노이 전시장에서 열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현준태 도 관광국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사업본부장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베트남 관계자들이 강원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권태명기자

들에게 강원도관은 단연 이슈였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베트남관광협회장, 주베트남 UNDP 상주대표 등으로 구성된 내빈들은 개막식 직후 첫 순서로 강원도관을 참관했다. 특히 도 캐릭터인 강원 이·특별이 기념품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며 관심을 드러냈다. 강원도대표단 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스에서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연맹 총회로 인연이 깊은 베트남 도시 '광닌'

부스를 방문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람회 연계 '강원관광설명회'도 마련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막 첫날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한류, 웰니스, 동계, 축제로 대표되는 강원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했다. 또 강원관광 세일즈 대표단과 베트남 여행업계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체류형 강원

관광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했다.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주제로 14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강원도대표단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마케팅과 관광소비자 대상 체험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람회 둘째날인 12일에는 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방문,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한다.

베트남 하노이=김현이기자

江原日報

2024 04 12 ()

01

강원 관광 콘텐츠 베트남 사로잡다

도,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동남아시아 시장의 중심, 베트남에서 'K-관광'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관련기사 9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원도대표단은 11일 베트남 하노이 ICE에서 열린 '2024 베트남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 15개국, 615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자치도와 13개 시·군, 강원랜드, 강원관광재단 등은 단독 홍보관을 꾸렸다.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콘텐츠 등을 소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K-관광', 'K-콘텐츠' 절대 강자답게, 박람회장 입구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물 홍보 전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강원자치도 비롯 13개 시·군 강원랜드·강원관광재단 참여 단독 홍보관 운영 시선 집중

양양 서피비치, 삼척 장호항, 철원 고석정 등을 배경으로 신명나는 퓨전국악 연주와 전통무용이 이어지는 영상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폐쇄된 도로·철도를 재활용한 횡성 '루지', 춘천 '레일바이크', 지역 주민 참여를 극대화한 정선 '마을호텔' 등을 홍보, 호평을 얻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번 박람회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관광시장에 강원자치도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는 "베트남 참가자들이 강원도에 큰 관심을 보여준 덕분에 향후 베트남 관광객의 강원 방문이 기다려진다"며 "다른 국가, 지역의 홍보 부스를 돌아보며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김현이기자

江原日報

2024 04 12 ()

09

미디어 콘퍼런스 성료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개막 첫날인 11일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 호텔에서 박람회 연계 ‘강원더풀 나이트, 강원관광의 밤 미디어 콘퍼런스’가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정일섭도 글로벌본부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훈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 및 베트남 현지 미디어 취재진 2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을 알린 행사는 주최 측의 모두발언 이후 본격적인 콘퍼런스 순서로 이어졌다. 콘퍼런스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트남 하노이=김현아 기자

2024 04 12 ()

09

江原日報

인기만점 강원홍보관 바이어 상담 쇄도

도·시·군·강원랜드 부스 화제
춘천시 3시간 만에 500명 방문

베트남 통일절 황금연휴(4월27일~5월1일)를 앞두고 개최된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서는 강원지역 13개 시·군 부스마다 관광 정보를 얻으려는 방문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인기를 실감케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에 놀란 현지 언론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에 바이어 상담까지 쇄도하며 시·군들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11일 베트남 하노이 I.C.E에서 개막한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현장에는 수십여 미디어 매체가 열띤

취재에 나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시장 회복세를 보여줬다. 취재진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강원홍보관이었다. 강원자치도와 도내 13개 시·군, 강원랜드 부스들은 특색 있는 이벤트와 사은품으로 방문객을 유인, 인산인해를 이루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춘천시는 레고 키트 사은품으로 개막 3시간 만에 방문객 500여명이 몰려 ‘화제의 부스’로 꼽혔다. 준비한 사은품이 하루 만에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춘천시는 특정 시간대에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급히 홍보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레고 키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춘천시는 춘천시와 레고랜드, 각각

다른 주제로 현지 매체 인터뷰를 요청받아 진행했다.

홍천군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주요관광지인 ‘알파카월드’를 접목, 맥주모양 메모지에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알파카 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인파를 모았다.

강원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라는 점을 살려 미니 컬링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자치도 부스에서는 강원지역으로의 아웃바운드 관광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현지 여행사의 미팅도 이어졌다.

베트남 하노이=김현아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08

학령인구 감소 타격...춘천교대 12년 만에 입학정원 감축

**임용·배출인원 불균형 심화
교육부, 정원 12% 축소 추진
춘교대 39명 줄여 282명 모집**

춘천교대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12% 감축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12년 만이다.

11일 교육부는 '2024년 교육대학정

원 정가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부터 춘천교대 등 전국 교원양성대학은 현 입학정원인 3847명에서 457명 줄어든 339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춘천교대는 기존 321명에서 282명으로 39명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대대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지난 2012년(3848명)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06년 538명이던 춘천교

대 입학정원은 2007년 494명, 2008년 467명 등 매년 줄어들었다. 이후 2012년까지 매해 감소한 뒤 12년째 현 정원(321명)을 유지 중이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하락하지만 각 대학의 입학정원은 동결돼 임용 인원과 배출인원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 인원은 3561명으로 입학정원(3847명)

보다 286명 적었다.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 2019학년도 272명이던 초등 임용 규모는 지난해(2023학년도) 93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75명(일반 69명, 장애 6명)만을 모집하면서 교육청이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교대 졸업생의 교원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도 이어져 올해 2월 춘천교대를 졸업한 309명 가운데 임용에 합격한 인원은 140명(45.3%)에 그쳤다. 대학 측은 실질적

인 재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들면서 임용 적체가 발생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임용 선발 인원과 입학정원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정부가 제안한 재정보전책은 명확하지 않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매해 누적될 것이기에 정부에 계속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16

정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폭 넓힌다

**군 16~18일 공급업체 모집
이달 선정위 개최 최종선정
지역축제행사 등 적극 홍보**

정선군이 고향사랑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 정선의 특산품을 비롯한 명품 관광지 이용권 등 다양한 답례

품을 제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 및 가공품, 정선군에서만 통용되는 관광 입장권 등의 유가증권 등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업체는 오는 16

~18일까지 신청서, 공급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군청 기획관 인구정책팀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민원서비스 및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답례품 공급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화암약수제, 아리랑제 등 지역 축제 행사를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

한 홍보활동을 펼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억원 목표에 1억 9200만원을 모금해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은 "국민고향정선을 대표하는 특산품 생산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공보의 급감 ‘의사 없는 보건지소’ 늘어나나

농어촌 의료공백 비상

속보=공중보건의 배치가 큰 폭으로 줄면서(본보 지난 9일자 5면 보도) ‘의사 없는 보건지소’가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이미 병·의원이 폐업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공중보건의마저 줄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2024년 강원자치도가 신규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 인원은 61명으로, 복무를 만료한 공중보건의 인원 83명에 비해 22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전체 공중보건의 수는 270명에서

올해 도내 공보의 270명→248명 현재도 4곳 중 1곳 배치 안돼

병원 파견도 내달 5일까지 연장
도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할 것”

248명으로 줄었다.

일선 시·군에는 비상이 걸렸다. 횡성군은 이미 지난해에도 보건지소 1곳에 의사를 배치하지 못했으나 당장 올해 배정받은 공중보건의 수가 1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는 보건지소 3곳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을 나간 공중보건의의 파견 기간이 올 5월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삼척시도 공중보건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며 지난해 보건지소 1곳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의사 2명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한 지소 수는 3곳으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270명이 배치돼 있던 지난해에도 도내 25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도내 공중보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96곳으로, 4곳 중 1곳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의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자치도는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발언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으로 생명을 지키자

사람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은 벽, 바닥, 기둥, 보, 지붕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바람, 햇살, 추위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화재일 것이다.

실내에서 불이 나면, 많은 연기와 열로 인하여 미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생명과 신체를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 소화, 진압, 인명구조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건축물 화재에 대비해서 건축물에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건축물에 갖추어진 소방시설 등을 화재 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계인이 소

방시설등을 잘 유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그 건물의 방화구획,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이다.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이란 연 1회 혹은 2회의 소방시설등 점검을 통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체 점검 제도는 지난 2004년 이전부터 있었으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은 2014년 관련법 개정

이후부터 의무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우리 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 적발건의 43%가 자체 점검 미실시, 결과 보고서 등 제출기한 미준수 등 자체 점검 관련 건들이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또는 2회 건축물 소방시설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와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량사항 수리등 이행계획 실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보고서도 역시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교통법적금과 같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

고, 자체 점검을 깜빡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30년 가까이 소방에 몸담으면서 나와 함께 하는 이의 생명 그리고 사고에서 모르는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현장을 직접 뛰었지만 이러한 자체 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건축물 화재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역 사회 이웃과 함께하고 싶다.

이태운
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화려한 벚꽃 찬란한 태양 빛꽃이 만개한 춘천 공지천에서 아파트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춘천=홍원문 시민기자

수줍게 내민 얼굴 움트는 봄의 대花

봄꽃을 기다린 사진작가들의 간절함에 보답하는 듯 햇살이 따사로운 들과 산, 심지어 바위틈에도 다양한 봄꽃이 그 색깔의 꽃잎들로 봄을 화려하게 칠하고 있다. 골짜기마다 피어난 목련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벚꽃 명소엔 흐드러지게 만개한 벚꽃들이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의 춘심을 설레게 한다. 동강 강줄기 옆 바위틈에는 동강할미꽃이 그 귀한 얼굴을 드러냈다. 깊은 숲속 수줍게 피어나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처녀치마꽃도 쉽게 보기 힘든 봄 손님이다. 냇가에 피어난 깃버들은 겨울을 보내고 번식지로 떠나는 멧쟁이새의 먹이가 돼 소중한 체력을 충전해 준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깨어난 지금은 봄이다.

글=박승선기자 / 사진=강원일보시민기자단 / 편집=전윤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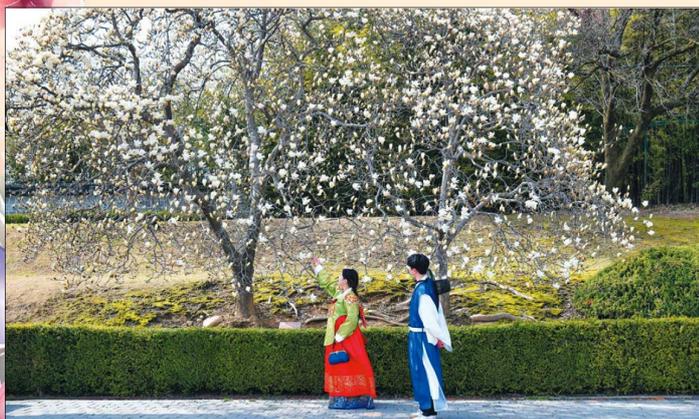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설악을 뚫고 나온 꽃망울 설악산 자락에 노란 복수초가 피었다. 속초=정창근 시민기자



봄의 전령사 활짝 동강할미꽃은 3월부터 5월 초 사이에 붉은색과 보라색 꽃을 피우는 식물로 동강의 석회암지대 햇빛이 잘드는 바위틈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 식물이다. 영월=유홍균 시민기자



오죽헌 목련 아래 너와 나 강릉시 오죽헌에 핀 목련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강릉=이주섭 시민기자



버들가지 새순 먹는 멧쟁이새 겨울 철새인 멧쟁이새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번식지로 떠나가기 전 봄의 상징인 버들가지 새순을 맛나게 먹으며 체력을 충전하고 있다.

춘천=조성원 시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 19

첨단산업 육성 정치권 협치 기대

-기회발전특구 등 여야 초월해 협력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운동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은 도민들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은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수소·의료 등 미래 산업의 발전 여부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정당을 떠나 강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주력하는 분야는 바이오와 반도체, 수소 등입니다. 도와 시군이 도전하는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2000억 원 규모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대내외에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해,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도는 반도체산업 위원회를 운영할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연말에 교육센터를 착공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입주기업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첨단산업 육성은 춘천과 원주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와 삼척시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을, 태백시는 전략산업 구축을 모색합니다. 홍천군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횡성군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영월군 세라믹 원료소재, 화천군 군납 클러스터 조성도 지역 관심사입니다.

이들 산업은 특구 선정 여부를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고 공동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도와 지자체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은,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강조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언과 구상 단계에 머물지 말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끌어낼 시점입니다. 첨단산업 유치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함께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기형화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침체한 지역을 회생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4 12 ()

/ 25

정파 초월 현안해결 앞장, 실천으로 이어져야

강원일보사가 11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및 연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 토론회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주제는 ‘새로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이었다. 이번에 당선된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고 인사들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함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해 철저히 공조를 다짐했다. 당선자 초청 정책 토론회는 총선 때마다 열리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환경이 그만큼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큰 탓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즉,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신속

하게 주민 요구에 대응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력과 분권력이 구체화돼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다 착공식을 가진 동서고속화철도와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활성화,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활성화,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지역 활성화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

접경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 문제

등은 거론만 되고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의 한계로 좌절된 것이 많았다. 이들 현안은 지역구를 떠나 도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합해 대정부 활동을 벌여야 해결 방안이 찾아지는 사안들이다. 역대 정권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강원특별자치도가 타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발전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냐는 과거의 정치인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당선된 도 출신 정치인들의 활동 여하에 달렸다고 본다.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
선량들, 지역 발전에 정파 초월 공조 다짐”
치밀한 지역 논리로 대정부 활동 강화할 때

우리의 정치 환경은 예전과 달라졌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의 영(令)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과거의 정치 행태에 변화가 일

고 있는 것이다. 비록 초선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정치 소신과 철학으로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펴는 시대다. 또 그렇게 해야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역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들은 일차적으로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변화를 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도 국정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며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 공조 약속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12 ()

/ 19

폐광지 의료 등 지역경험 적극 제도화하길

-지역구 이외 강원국회의원 14명 배출...기대 남다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신생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강원 지역 출신 및 연고를 둔 소속 당선자가 대거 배출돼 향후 활동에 벌써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기·인천·충북 등 타 시도 지역구에 출마해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8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중에는 5선에 성공함으로써 중진 의원으로 무게감이 걸맞은 활약이 기대되는 동시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경우는 패기 만만한 활동이 전망됩니다.

비례의원 당선자는 3개 정당의 6명으로 파악돼 총 14명이 배출된 역대 총선에서 보기 드문 쾌거입니다. 주로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오다가 국회에 진출한 비례 의원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입법 활동의 주역입니다. 이들 14명은 강원 지역 상황이나 비수도권 정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가 있기에 도민과 지역 사회 입장에서 소통의 장을 다양화하게 확보함으로써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윤호중 의원(춘천)과 정성호 의원(양구)은 경기도에서 나란히 5선에 올라 무게감이 커졌습니다. 도경제부지사 출신 맹성규 의원과 태백 연구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했고, 김병주 의원(강릉)은 재선을 거머쥐었습니

다. 김현 전 의원(강릉)은 안산을에서 19대 비례의원에 이어 이번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전 강원도당 위원장은 서울 은평에서, 송재봉 자치분권 시민운동가(정선)는 충북에서 당선돼 초선다운 의욕 넘치는 활약을 예상합니다.

비례의원 당선자 면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연합 소속으로 총선 중 부고 향인 홍천 등지를 누빈 재선 용혜인의원은 저소득층 등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민의미래 소속 진중오 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올림픽 유산 및 국가 스포츠, 더불어민주당 연합 소속 백승아 전 강원 교사 노조 위원장은 비수도권 교육 현안과 공교육 의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 출신 당선자를 다수 배출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태백병원 직업환경 의학과장, 박은정 전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홍천 출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해당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김선민 당선자는 진폐증 환자 등 직업병 진료 체계 구축을, 박 당선자는 인권과 직결된 사법 체계의 불합리 개선, 김준형 당선자는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방출 등 외교 사안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 도민과 국민 지지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12 ()

/ 25

전세 사기에 주거 부담 커진 청년들, 대책은 뭔가

도내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계약 비중이 3년 연속 60%를 웃돌고 있다. 전세사기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때일 염려가 있는 전세보다 월세로 수요가 몰린 여파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1~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16건, 월세 거래량은 200건으로, 이에 따른 월세 비중이 63.3%를 차지했다. 2020년 도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3.4%, 2021년 42.9%였지만 2022년(67.8%)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연속 6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량 비중은 67.4%를 나타냈는데,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2월 기준) 최고였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을 꼽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 달 월세가 50만원이 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10만원 안팎인 관리비와 가스·전기요금 등을 더하면 월 주거비는 100

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정부 조사에서 19~34세 청년층의 평균 월급이 252만원이었으니 월급의 40%를 주거비로 쓰는 셈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빌라·오피스텔에서 전세 기피가 확산된 탓이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사기가 계속된 데다 피해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지만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협의 중인 사람은 199명뿐이다.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강릉전세나 역전세는 사회·경제적 과장이 예고되는 사안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처분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 세입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민용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